

사이버 성폭력

얼굴과 이름이 보이지 않는 노골적 폭력

래드리본 은 보다 현실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2002년 한해를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기획을 연재한다.



임필빈
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과 의사, 상에세이 (아니 여자가 어디 처녀가: 동아일보사) 저자

한 달 전인가 우연히 병원 휴게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학 후배를 만났다.

“필린 언니, 오랜만이야...” “정아 (가명)야. 야, 많이 이뻐졌네. 남자 친구는 잘 있어?”

“그럼, 잘 있지.” “아직도 뜨거운 사인가봐. 오래도 가네. 결혼하겠다, 너희들.” “호호호, 그렇게 될 것 같아.” 키는 좀 작지만 곱상한 외모에 명랑한 성격으로 채팅을 즐겨하던 정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번개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지만 6개월 전에 드디어 번개에서 제 짝을 찾아 아직까지 열애 중이었다.

>> 사이버 공간에서 변신하는 사람들

“정아야, 넌 참 운도 좋다. 보통 채팅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방 많잖니? 특히 테이트 방. 남자들이 방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잖니. ‘외로운 설녀(서울녀), 드라이브 즐기실 분 오세요’, ‘미시도 환영, 테크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강남에서 맥주같이 하실 분,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 만나고 싶어요’, ‘외로워요. 이 밤에 편안한 대화 하실 분’, ‘번쩍 하실 분, 일바(아르바이트)도 환영’, ‘야한 동영상 같이 보실 분’”

“언니, 그런 남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히니 그래도 양심 있지.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는 여자들 다 뻔하잖아.”

“하긴 다들 20세 넘은 성인들인데 그들이 그러든 말든 제 3자가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거지. 동영상은 같이 보든, 성적인 대화를 하든 서로 원했다면. 그런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런 남자들 알고 보면 허울 좋고 멀쩡한 사람들 많거든. 일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척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실제로 섹스 파트너를 원하지만 만약 소개로 여자를 만났다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바로 ‘저 오늘 외로운데 섹스 하실래요?’ 라고 말뭉개거든.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바로 그런 대화했다간 자기 이미지 말이 아니지. 소개해 준 친구한테도 미안한 거구. 같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라면 일을 어떻게 같이 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만 들어오면 돌변하는 거야. 사이버 상에서는 우선 자신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섹스 상대를 쉽게 구하는 거지.”

“맞아. 언니! 그건 그렇고 방 제목 중에서 제일 위험한 방 제목이 뭐게?”

“음, ‘편안한 대화하실 분 원해요’ 겠지. 원지 건전하게 대화상대를 찾는 듯하게 보니까 여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잖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는 애는 그런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노골적으로 성

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 그냥 나와버리면 남자가 뭐라고 할까봐 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더니. 포르노 동영상을 띄워주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야. 자기 성기가 이 배우만큼 크다는 등. 그래서 너무 낯뜨겁고 발로만 듣던 야한 채팅을 하게 된 게 분하기도 하고 쇼크를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채팅방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낸대. 그런 남자 또 만날까봐.”

“정야야.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사이버 대화방에서 상대 남자와 정말 편안한 대화를 기대하던 여자가 채팅 상대 남자로부터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인 대화로 가게 되면 그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거고 결국 성희롱이고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나 다름없는 거지. 사이버성폭력을 입은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성적 폭력의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지.”

“하긴, 고등학교 교사랑 원조교제 했던 여고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채팅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던데. 성인 전용 채팅방이라고 써 놓는다고 미성년자가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막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 사이버 공간 기피증도 유발시켜

정야와 난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가!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에 안가도 되고, 인터

넷에서 공동구매해서 물건도 싸게 사고,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사이버를 통해 만난 동호회 사람들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라도 매일 화상채팅이나 음성채팅까지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도 안 들고 지구촌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렇듯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로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는 것조차 부서워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네티즌들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도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정야야, 사이버 공간이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되려면 네티즌들이야 사이버 상에서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 네티즌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대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지.”

